

SK하이닉스, ‘비용 절감·효율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소통행사서 비상 경영 선포
연차 사용 권장·직급 간소화 등
사내 공모전 통해 개선안 소개

SK하이닉스가 경영 위기를 정상화 기회로 삼았다.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중장기적 과제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박노정 사장 주최로 ‘함께하는 더(TH)E) 소통행사’를 통해 사실상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이날 박 사장은 전달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효율 개선안을 소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차 사용률이 높은 직원에 복지포인트를 지



SK하이닉스 인천 행복문. /SK하이닉스

급하고 장기휴가를 권장하거나, 거점 오피스 추가 설치 및 통근 버스 교체를 보류하는 등 내용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에도 연차 사용을 권장했으며, 올해 인사에서는 팀장 등 직급을 간소화하며 임원과 팀장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바 있다. 최근에는 휴일 거점 오피스 근무에

제한을 두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를 통해 수백억원대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차 수당이 1일당 15만원 수준, 임직원 3만명이 하루씩만 연차를 소진해도 45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한달에 150만원에 달하는 직급 수당과 거점 오피스 임대료와 운영 비용, 대당 수익원의 통근 버스 비용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경영 개선책을 통해 그동안 일부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분을 찾아 효율을 되찾는데 중점을 뒀다. 경영 위기 속 임시방편이 아닌, 궁극적으로 회사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비용 절감 목적으로만 알려져있지만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은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며 “호황기에는 개선하기 어려웠던 비효율적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찾아 고치자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삼성전자와 비교해 사업 효율에서 다소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전자 역시 역대급 위기 속에서 비용 절감에 나섰지만, 임직원 근무와는 별개로 일부 비용 절감과 출장 제한 등으로 국한한 것도 이미 효율성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여기에서 나온다.

대표적인 게 휴일 근무. 내부에서도 실제 업무와는 관계없이 수당을 목적으로

로 한 휴일 근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 거점 오피스가 정착하면서 이같은 ‘악습’은 더 확대,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직원들간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알려졌다.

팀장 업무 추진비도 논란 거리 중 하나였다. 실제 업무와는 관계없이 직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업무 추진비를 유용하는 데 대한 의혹도 여럿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2021년 말 다운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에도 직원들 요구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며 “이번 경영 위기를 기회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로템-하나은행, 철도 민간사업 뛰어든다

SOC 건설 위해 인프라펀드 투자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 계획

현대로템이 하나은행과 함께 철도 사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펀드에 투자한다.

현대로템은 하나은행과 철도와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및 개발 사업 투자를 위한 인프라펀드 투자계약서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과 하나은행 등 투자자들은 인프라펀드 투자계약서를 체결, 펀드 참여를 확정했으며 운용은 하나대체



김정호 현대로템 레이솔루션본부장(왼쪽 네번째)과 전호진 하나은행 IB사업본부장(왼쪽 다섯번째)이 MOU를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산운용에서 맡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된 인프라펀드는 SOC 건설, 수소사업 등 미래 전략사업 및 E

SG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발생하는 수익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운용방식은 우선 투자금 일부를 조성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때마다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및 지방 지역의 급행철도, 일반철도, 트램 사업에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 철도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노선 신설 및 기존 철도시설 개량까지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종점 연장, 지선 신설 등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개발을 주도했

던 철도 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됐다.

현대로템과 하나은행은 이번 펀드 조성을 계기로 철도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철도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된다. 투자금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만큼 투자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금융사인 하나은행과 철도차량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참여가 사업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하나은행과의 전략적 협력이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발전시킬 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각사의 역량을 모아 민간투자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2조원 HVDC 케이블 수주… 역대 최대 규모

(초고압직류송전)

북해 해상풍력단지
독일·네덜란드 내륙 이어

LS전선이 전선 업계 수주 기록을 갈아치웠다.

LS전선은 최근 네덜란드 테네트사에서 2조원대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북해 해상풍력단지와 독일, 네덜란드 내륙을 HVDC 케이블로 잇는 내용이다. LS전선은 벨기에 건설업체 안두넬과 데니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케이블 수주 금액만 2조원에 달한다.



LS전선 동해 HVDC 공장.

LS전선이 수주한 금액은 전세계 전선업계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다. 2026년부터 525kV급 해저 및 지중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테네트사로부터 1년간 장기 신뢰성 시험을

통과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LS전선은 2026년부터 525kV급 해저 및 지중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525kV급 케이블은 HVDC 중 최고 전압 제품으로, 320kV급과 비교해 송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전압형(VSC) 기술로 송전 방향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전세계에서도 소수 업체, 국내에서는 LS전선만 보유하고 있다.

LS전선은 “HVDC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 등 시장 확대에 대비해 왔다”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SK네트웍스, ‘모빌리티’로 안정 경영 확인

매출 2.4조·영업익 531억 실적 공시
렌터카·스피드메이트 영업익 20.5% ↑

SK네트웍스가 1분기에도 성장을 이어나가며 안정적인 경영을 확인했다.

SK네트웍스는 1분기 매출 2조4497억원에 영업이익 531억원을 기록했다. 8일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22.6% 증가하며 코로나19 엔데믹 효과를 본격화했다.

이번에도 미래 중점 사업인 모빌리티가 주인공이었다. SK렌터카와 스피드메이트가 매출 5231억원에 영업이익 50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년 동기(5389억원)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20.5%나 증가하며 다시 한 번 미래 가능성을 증명했다.

SK네트웍스는 SK렌터카가 중고차 매각을 늘린 데 더해 제주 전기차 차박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연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등 활동으로, 스피드메이트는 수입차 부품 매출과 정비 방문 고객 회복으로 이익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위커힐 역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정상화하며 3분기 연속 흑자에 성공했다. 매출 639억원에 영업이익 16억원을 기록

하며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 35.6%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개관 60주년 기념 마케팅과 인천공항 환승호텔, 마티나 라운지 정상화도 효과가 컸다.

정보통신 사업도 단말기 판매량 감소 추세에 대응한 물류 최적화 등 비용 효율화로 견조한 실적을 냈다. 매출 1조2499억원에 영업이익 170억원이다. 민팅도 중고폰 매입과 판매 증가를 이뤄 내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나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화학 트레이딩 사업 역시 수급 조절을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매출 3230억원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 성장을 이어갔다.

가전 시장 침체로 SK매직만은 어려웠다. 매출이 27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13억원으로 45.7% 쪼그라들었다. 계정이 234만개를 돌파하긴 했지만 시장 경쟁 심화와 원가 인상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계정을 늘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ESG 경영 성과도 자랑했다. 지난 2월 글로벌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000억원대 자사주 매입과 700억원 규모 소각으로 주주소통과 가치를 높였다.

/김재웅 기자

홈쇼핑

‘텐텐제’서 다양한 혜택 제공

홈쇼핑이 연중 최대 특집 행사 중 하나인 ‘텐텐제’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8일 홈쇼핑에 따르면 사전에 텐텐제 오픈 알람 ‘푸시(PUSH)’를 신청한 고객에게 얼리버드 적립금 1000원을 10일에 준다. 또 추첨을 통해 총 100만 원 상당의 시그니엘 서울 2인 숙박권 패키지를 선물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블룸호텔 제주’서 아트스테이 객실 선포

교원그룹, ‘다이브인’과 협업

교원그룹 ‘블룸호텔 제주’가 몰입형 아트 플랫폼 ‘다이브인’과 협업을 통해 아트스테이 객실을 선보인다.

8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다이브인 아트스테이’ 객실은 고객들에게 호강스와 예술 작품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했

다. 단순히 그림이나 조형물을 비치해 실재를 꾸미는 것이 아닌 객실 전체를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객실에 머무는 동안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이브인 아트스테이 객실은 이상원, 김판목, 조예린 등 우리나라 아트 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명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로 조성됐다. /김승호 기자